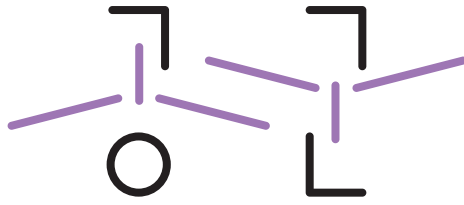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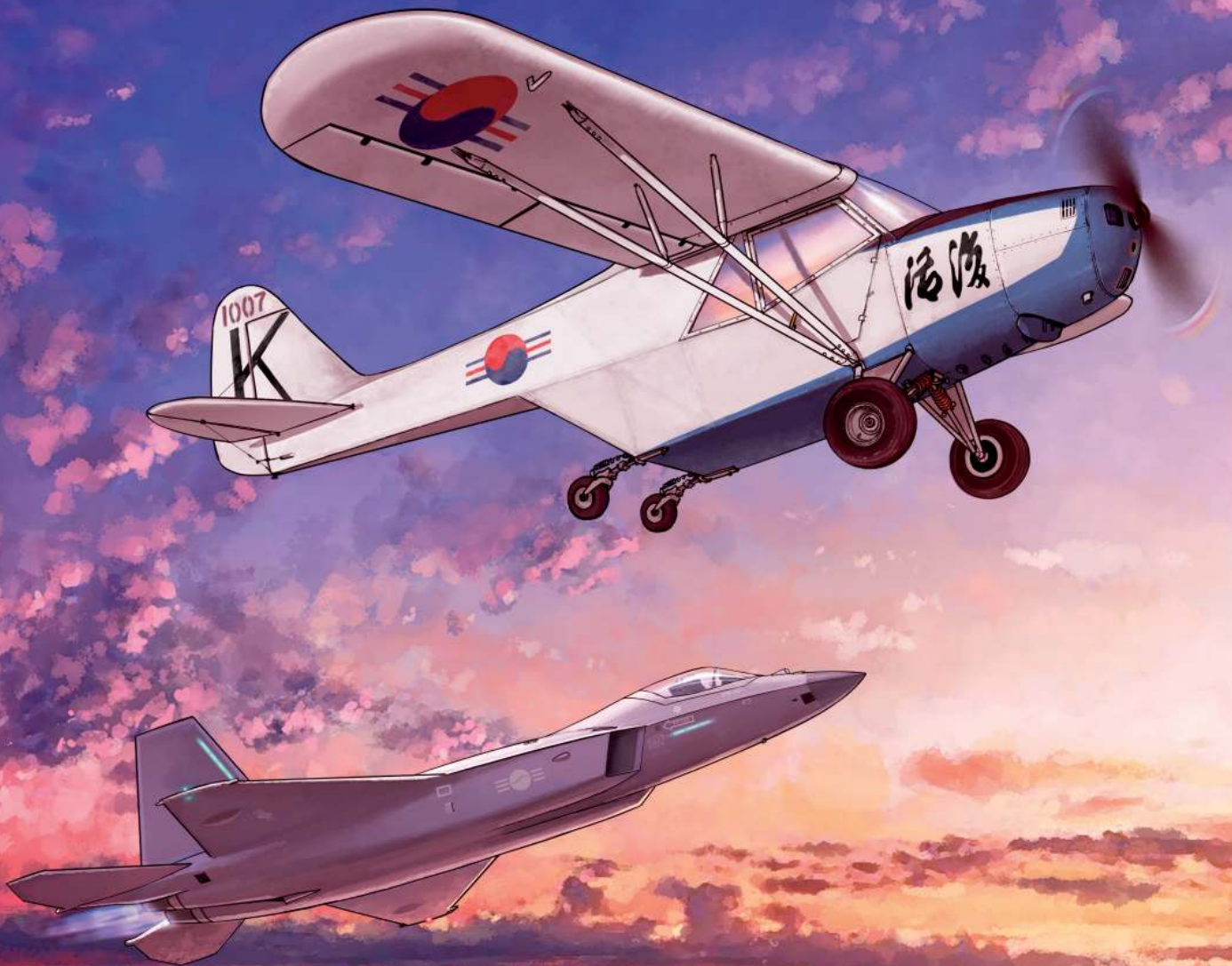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1
10
5 2 0

<http://afzine.co.kr>



Contents

04	기획특집	공군, 희망의 날개가 되다
12	기획특집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KF-21로 부활하다!
18	특별 인터뷰	공군 역사 연구의 중심, 공군역사재단을 소개합니다.
<hr/>		
20	특별기고	미운 오리가 될 뻔했던 '시그너스'의 반전과 교훈 (헤럴드경제 신대원 기자)
22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20화 김윤성(金潤成) 시인 편
28	내 옆의 공군인	신병제1훈련대대 소대장 정튼튼 상사
34	우리 부대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
38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부활호와 KF-21(장우룡 작가)
표 지(뒤) 서울 ADEX 2021 행사장 풍경(자토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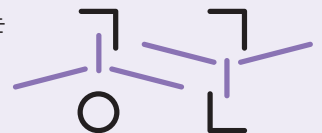
발 행 일 자 2021년 10월 1일(통권 제520호)
발 행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최지형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1090382)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 | | | |
|-------|----------|-------------------------------------|
| 44 | 한 달, 한 권 | 눈물겹게 이어져 온 독립운동의 흔적 |
| 46 | 명상을 말하다 | 습관의 힘 |
| 48 | 영화로운 나날 | 괴상한 사랑 영화 |
| <hr/> | | |
| 50 | 생각하는 그림 | 나무 의자의 밑면을 닦는 것처럼 |
| 52 | 공군인의 편지 | 형, 고마워
(제8630부대 일병 김성광) |
| 53 | 책 읽는 공군 | 인생이란 100년짜리 영화
(제19전투비행단 병장 정필근) |
| 54 | 수용의 미학 |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다 |
| 55 | 마음의 소리 | 독자 참여 코너 |





공군, 희망의 날개가 되다

_미라클 작전 요원 인터뷰

공군은 지난 8월 26일(목), 수년간 駐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과 바그람 한국병원 등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국내로 수송하는 ‘미라클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번 작전에는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MRTT, Multi-Role Tanker Transport) 1대, C-130J 수송기 2대 등 공군 항공기 3대와 조종사, 정비요원, 공정통제사(CCT, Combat Control Team), 항공의무요원 등 60여 명의 최정예 작전요원이 전격 투입됐다. 이번 호에서는 미라클 작전에 투입된 조종사, 항공적재사, 공정통제사, 의무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전장을 방불케 하는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국격을 높인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이상일 소령



권오현 원사



공정통제사



김기천 (임중령(진))

AF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일 소령 : 제5공중기동비행단 계획처 이상일 소령입니다. 251대대에서 일선행정직 조종사로 지상 업무와 비행 임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C-130만 1,500시간 이상 탑승했고, 지금까지 총 11회의 해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비행 대대에서 작전계장과 항공작전과 통제장교로 근무하며 공수작전에 대한 임무 지식을 쌓았습니다.

권오현 원사 : 제5공중기동비행단 261정비중대 정비기장 권오현 원사입니다. 1997년 항공과학고를 졸업해 약 17년 동안 제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정비업무를 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KC-330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C-330 정비 업무를 맡은 이후에 이라크 교민 후송 임무, 동명부대 24, 25진 교대 등 해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에서는 항공적재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공정통제사 : 이번 미라클 작전에서 항공기와 작전요원 경호, 내외부 통제를 담당했던 공정통제사입니다. 특전사 저/고공 강하, UDT/SEAL 특수전, 대테러 교육 등을 받았고, 현재는 부대에서 공정통제사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임무 특성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김기천 (임중령(진)) : 제20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 김기천 (임)중령(진)입니다. 2008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순환기내과 전문의과정을 수료했고,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특수검진과장, 항공의무과장 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Red Flag Alaska 훈련, 2020년에 이라크 교민 후송 임무 등 해외 임무 경험도 있습니다.



작전 당시 카불 공항 인근 상황

AF 대부분 해외 임무 경험이 있으시네요. 이번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신경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이상일 소령 : 이번 작전의 핵심은 안전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탑승시켜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복귀하는 것이 작전 목표였죠. 카불 공항은 지리적으로 높은 고도에 있어 공기 밀도가 낮습니다. 그에 따라 항공기 성능 저하에 대비한 이착륙 성능을 계산해야 했죠. 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의 각종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고려해 전술 이착륙 절차를 세우고, 악기상에 대비한 접근 절차와 주변 고고도 장애물을 고려한 이륙 절차 등을 준비했습니다. 최종 계획은 인천 공항,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총 3개의 공항을 오가며 아프간 조력자들을 무사히 수송하는 것으로, 카불 공항과 이슬라마바드 공항은 C-130,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인천 공항까지는 KC-330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권오현 원사 : 임무에 나서기 전에 저는 KC-330 특별 점검과 항공기 수리부속과 공구 등을 준비했습니다. 승무원과 탑승객들에게 제공될 기내식과 기내 용품도 적재하였습니다. 현지 체류 기간과 수송 인원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최대치인 400인분을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비행경로와 항공기 중량, 탑승객과 화물의 무게 등을 고려해 탑재할 항공기 연료량을 결정했죠. 추가로 객실 내 인원 수송 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기 위해 객실을 총 3개 구역으로 분리하기 위한 비닐막도 설치했습니다. 구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준비한 뒤에는 기내 안전 확보 방안과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회의했습니다. 준비기간이 여유있진 않았지만, 모든 인원들이 합심해서 달려드니 작전 시작 전까지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정통제사 : 임무를 명 받은 직후 저희는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에 맞춰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송 인원엔 어린 아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했습니다. 또 식별되지 않은 인원들의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우리 작전 요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계획도 세웠고, 모든 계획들을 출발 전날까지 수정하고 보충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전 팀의 위치와 휴대 장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해 차질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천 (임)중령(진) : 이번 작전은 이라크 교민 후송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각종 의약품과 응급처치 키트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물자와



신속항원키트를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등 현지 풍토병을 고려해 약과 모기기피제도 준비했습니다. 기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 수칙 등도 계획했습니다. 다만, 탑승객들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도 확인할 수 없어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챙길지 정말 많은 시간 고민했습니다. 출국 전날에서야 5세 미만 어린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어린이용 약제품과 마스크를 구해 출발했습니다. 완벽한 준비라곤 할 수 없었지만, 최선의 준비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 카불행 수송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AF 실제 임무수행 과정은 어떠셨나요?

이상일 소령 : 23일 월요일 새벽 1시에 부대에서 이륙했습니다. 하늘은 적막했지만, 보름달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8시간 만에 첫 번째 기착지인 우타파오 공항에 도착했고 급유를 하자마자 이륙해서 파키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하고 16시간 만에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에 모두 지쳐있었으나, 이제 작전이 시작됐다는 긴장감에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카불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도 새벽 시간대라 아주 잠깐의 휴식 이후 곧장 항공기로 돌아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카불 공항에 다다랐을

무렵 위협신호가 울려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카불 공항에 도착해 우리에게 주어진 주기장에 항공기를 주기하고 작전요원들을 내려준 뒤 먼저 도착해 있던 아프간 조력자 26명을 태우고 이륙해 이슬라마바드로 먼저 복귀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2차 임무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다시 카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찾은 카불 공항에서 수백 명의 아프간 조력자들의 무리를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모두 태우고 이륙하니 전에 못 느껴본 무게감으로 상승률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으나, 이내 안전하게 이륙해 이슬라마바드 공항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선 KC-330으로 옮겨타지 못한 아프간 조력자들이 소수 남아 그분들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갓난아기와 엄마가 타고 있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조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공정통제사

권오현 원사 : 만반의 준비를 한 뒤 파키스탄을 향해 비행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객실 안전 점검을 중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곧바로 항공기 점검과 연료 보급, 식수 보급 등의 지상 조업활동을 수행했습니다. C-130팀이 카불공항에서 아프간 조력자들을 수송해 오는 것에 맞춰 KC-330팀은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방역 안전 구역을 설정하고, 승객들에게 제공할 기내식과 용품들을 준비한 채로 기다렸죠. C-130팀이 도착하고는 정말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빠졌습니다. 항공적재사 2명과 정비사 7명이 승객 소지품과 수하물을 검사했습니다.

아프간 조력자 탑승 구역의 좌석은 총 259석이었습니다. 가능한 대로 전 좌석을 배정한 뒤에도 약 40여 명의 대기 승객이 남아있었습니다. 비행에 차질이 없는 한 가능한 인원을 모두 탑승시켜야 한다는 통제관의 결심 아래 승무원들이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77명의 인원을 태운 뒤에는 승객 인원을 파악하고 화물 수량을 파악해 항공기의 무게중심을 산출했습니다. KC-330의 최대이륙중량인 233,000kg보다 170kg 적은 무게였습니다. 다행히 이륙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승객 탑승부터 이륙까지 약 7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 오기까지는 별 탈 없었습니다. 무사히 복귀한 뒤에는 비행단으로 복귀를 위해 항공기 점검과 연료 보급, 객실 청소 등을 실시했습니다.

공정통제사 : 이번 임무에는 공정통제사 요원 8명이 투입됐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까지 이동한 뒤, 무장과 장비를 재정비하고 C-130에 탑승했습니다. 새벽 3시에 카불 공항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카불 공항에 도착하고 곧바로 항공기 주변 360도 경계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미군이 공항을 통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지만, 위험지역이고 언제든지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에 모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활주로 인근에 대기

중이던 아프간 조력자 26명을 먼저 C-130에 탑승시키고, 공정통제사 요원 2명과 함께 이슬라마바드로 먼저 복귀시켰습니다. 카불 공항에 잔류한 요원들은 탑승 인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 남쪽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인원들에 대한 수색과 분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군의 협조를 받아 신원이 확인된 인원들을 공항 북쪽에 위치한 활주로까지 차량으로 호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더 우리나라에서 발급해준 증명서와 실제 인물을 대조하며 탑승자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실시하고, C-130 2대에 탑승시켜 안전하게 이슬라마바드로 복귀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인천공항까지는 KC-330과 C-130에 나누어 탑승해 기내를 안전하게 통제해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C-130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

AF 굉장히 바쁜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일까요?

이상일 소령 : 승객들의 안전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5세 미만의 아이들이 100여 명이었고, 생후 20일 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도 있었습니다.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술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훈련이 아닌 실전이며 많은 생명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손에서 땀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권오현 원사 : 허용된 좌석수를 초과해 승객들의 개인별 좌석 배정이 어려웠습니다. 인원 파악과 통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기내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 전 인원에 대한 수하물 검사를 장시간 하다 보니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어 신경쓰였습니다.

공정통제사 : 시간에 쫓기는 것에서 오는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공항 주변에서는 계속 총격이 울리고, 테러

위협정보가 수시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히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의 통제로 정해진 시간에 아프간 조력자들이 공항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계획된 시간보다 12시간이나 더 지나서야 공항으로 이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카불에 있는 이틀 동안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김기천 (임)중령(진) : 추위와 피로 속에서 기약없는 기다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국군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건물도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죠. 탈레반의 통제로 아프간 조력자들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허허벌판에서 잠을 청해야 했죠. 무더운 낮과 다르게 해가 진 후에는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 때문에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잠을 청하려 해도 여기저기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총소리에 번쩍번쩍 놀라곤 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주기 중인 KC-330

AF 카불공항에는 C-130 항공기만 투입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일 소령 : KC-330은 비행을 위해 안전하고 긴 활주로가 필요하고, 대공 위협에 대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승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 탑승용 계단이 필요하고, 화물 적재를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카불 공항에는 이런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죠. 이에 반해 C-130은 험하고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과 착륙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죠. 승객들도 탑승시키는 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C-130 항공기가 카불 공항에 들어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AF 이번 작전을 통해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이상일 소령 : 긴급 해외 임무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한 명 없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오현 원사 : 작전명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공군의 4대 핵심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임무도 공군인들이 뚝치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정통제사 : 낮선 지역에서 낮선 임무를 수행하며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수행해야지, 어떤 작전이라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후배 공정통제사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기천 (임)중령(진) : 개인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군인들의 원동력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AF**





서울 ADEX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

2021. 10. 19(화) ~ 23(토) 서울공항

※10.19(화) ~ 22(금) 산·학·연·군 등 관련 분야 종사자

※10.23(토) 일반인 관람 가능일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KF-21로 부활하다!

역사에서 ‘최초’는 항상 특별하게 기억된다. 최초가 최고일 순 없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몇 개 던져본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쉽게 대답할 것이다. 지난 4월에 공개된 KF-21 보라매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항공기는 무엇일까? T-50이나 KT-1이 먼저 떠오를 수 있다. 정답은 그보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10월 1일, 공군 창군일을 기념하며 공군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항공기 부활호를 소개한다. 이번 기획특집은 공군박물관과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원고이며,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모두 공군박물관 특별기획전 <‘부활호’, KF-21호 부활하다>에서 직접 볼 수 있다.





▲ 부활호 제작자들(설명자 이원복 소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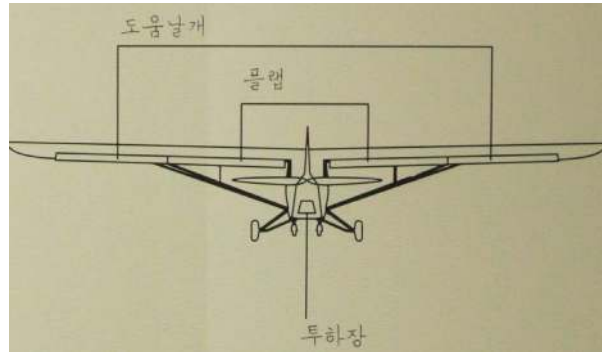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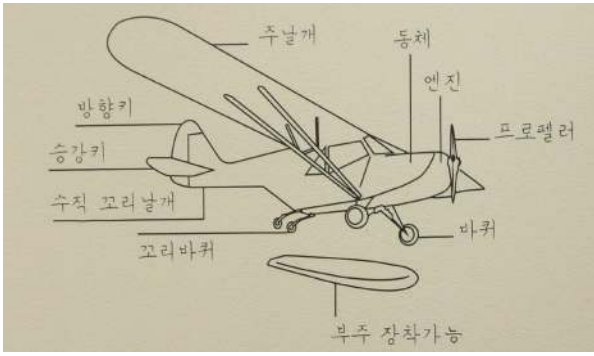
▼ 부활호 제작요원 명단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활호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공군은 창군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6·25전쟁을 겪었다. 전투기 한 대 없는 상황에서 전투기에 맞서 연락기를 투입시키는 실정이었다. 그렇게 공군은 6·25전쟁에서 항공력의 중요성을 처절히 느꼈다. 그리고 동맹국의 호의에 의존한 원조만으로는 항공력을 갖추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다. 전쟁 중에도 항공기를 한 대라도 더 구비하고, 항공기 기술을 세우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거듭했다. 1951년 배덕찬 중위와 그 동료들은 추락한 항공기의 부품들을 모아 L-5, L-16를 각 1대씩 조립해 임무에 투입시키기도 했다. 부활호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출발했다.

1953년 6월 당시 공군기술학교 교장 김성태 대령은 6·25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기술로 직접 설계한 항공기의 제작을 정비교육대에 지시했다. 우리 기술로 경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려는 의도였다. 당시 정비과장 이원복 소령은 엔진, 프로펠러, 강착장치, 계기 등은 기존 L-16 항공기의 부품을 사용하고, 동체와 날개 등은 독자적인 구조로 설계하고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항공기 전체를 우리 기술로만 만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비교관과 정비사 27명이 각종 부품과 자재들을 활용해 항공기 제작에 몰두했다. 부활호는 단순히 여러 가지 부품들을 모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부활호 제작자들은 기존의 L형 항공기가 가지고 있던 기술적 문제들에 주목했다.

L형 항공기 사고의 다수가 이·착륙과 지상활주 중에 발생했다. 동체 앞부분이 들려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였다. 그 외에도 전단지나 물품을 투하할 때 대부분 후방석에서 전방 출입문을 통해 던져야 한다거나, 정찰 임무 시 저공비행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해야 해 지상포화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있었다.



부활호는 설계과정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조종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기수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자 꼬리날개를 최대한 동체 후방 뒤쪽에 설치했다. 또한 물건을 투하하고 공중에서 카메라 정찰을 수행하기 용이하도록 동체 뒤쪽에 여단을 수 있는 투명한

창을 만들었다. 이밖에도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플랩을 장착했고, 저속에서도 실속을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날개꼴을 채택했다. 또한, 수상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주(Float) 탈착도 가능하게끔 했다.

날개폭	12.7m	엔진	O-019-1	자체 무게	380kg
동체길이	6.6m	최대마력	85HP	연료 탑재량	12 gal.
높이	3.05m(수평시)	최대속도	180km/h	연료 소비량	6.5 gal/h

〈부활호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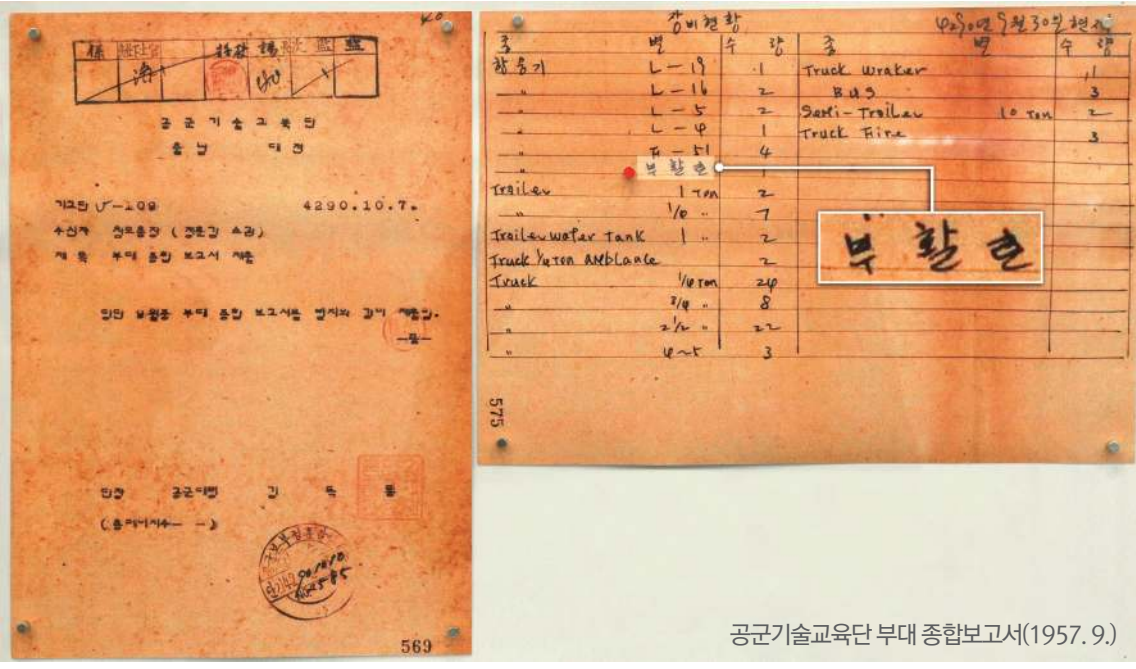
부활호는 10월 10일 조립과 지상점검까지 마치고 다음날인 11일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회복이란 의미로 ‘부활(復活)’이라는 휘호를 하사했다. 1954년 4월 3일엔 기술학교에서 함태영 부통령 주관으로 부활호 명명식도 거행했다. 행사장에는 ‘세우자 대한의 항공기술’이란 표어가 내걸렸으며, 제작에 참여한 요원에 대한 표창과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이뤄졌다.

여기까지만 듣기에도 부활호는 공군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명식 이후 부활호는 공군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진다. 부활호가 어떻게 사용됐고, 어디로 옮겨졌는지 흔적을 찾는 것조차 어렵다. 우선, 부활호는 1955년까지 연락기와 연습기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 3월 미국 공군기술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이원복은 이 시기 부활호를 찾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1957년 9월 공군기술교육단에서 작성한 부대 종합보고서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부활호를 보유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960년 10월 17일에 공군본부에서 작성한 폐항공기 처리 지시 문서에도 부활호로 추정되는 기록이 있다.



부활호 제작과정 사진(공군박물관 부활호 특별기획전)



공군기술교육단 부대 종합보고서(1957. 9.)

한국항공대학에 이관된 항공기 중 ‘기종 : L-16, 호수 : 1007’이라 기록된 항공기는 부활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활호는 L-16 항공기 부품을 활용해 만들었고, 고유번호 1007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또,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 한국항공학교에서 한국항공초급대학으로 변경을 허가받기 위해

1962년에 문교부로 제출한 공문서에 ‘실습장’이라는 첨부자료를 확인하면 일부 사진에서 ‘부활’ 휘호가 적힌 부활호의 동체를 볼 수 있다.

이후의 기록을 찾아보면, 한국항공초급대학이 폐교하고 1967년 경상공업고등학교로 다시 설립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들은 다른 곳에 처분되거나 창고로 들어갔고, 이때 부활호도 지하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자와 공식 문서 간의 사실관계가 충돌해 단정하긴 어려우나, 공식 문서에 근거했을 때 1960년까지는 부활호가 공군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25전쟁 이후에 공군은 제트기 등 신예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구식 항공기들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활호도 이런 흐름에 따라 대구의 한국항공대학에 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일보 2003년 12월 17일 수요일 40면

“국산 1호 비행기 ‘부활’ 찾습니다”

이원복씨, 40여년 수소문



지금으로부터 꼭 3백년 전인 193년 12월 17일 오전 10시30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호크 태생에서는 라이트 형제가 세계 첫 동력 비행에 성공했다. 미국에서 지난 12일부터 라이선스 1호 비행기 100대를 기념하는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이후 50년이 지난 53년 10월 10일, 한국 사천기지에서 국산 1호 비행기가 완성돼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마쳤다. 원형과 유사한 초음속엔진 2기를 장착했다. 이순산 대령님이 ‘부활’이라는 휘호를 내렸다. 이를 통해 당면해 표시한 뒤 5년 4월 3일 성대한 명명식을 치렀다. 그러나 ‘부활’은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남시 공군 소령으로 ‘부활’의 제작을 주도했던 이원복(李元福·77·사천)씨가 이 비행기를 예뻐하게 찾고 있다. “명명식을 치르고 1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오보니 ‘부활’이 행방불명했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35년이 지나서야 미 공군 공시고문에서 ‘부활’을 시험비행하기 위해 미국 본토로 가져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후자는 그후 ‘부활’이 미국 제너럴 항공기 제작회사로 갔다는 풍문을 듣고 여러 방법으로 제너럴사에 조회했으나 말 안한 사람도 없고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4년 공군이 사천과 제원을 포대로 ‘부활’을 거의 실물대로 복원,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지만 아쉬움은 여전했다.

“후진형장이 다행히도 찾아들던 5년 6월 공군 기술학교 김성태 교장이 사천에 공대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나에게 비행기 설계 제작을 요청했어요. 서울대 항공공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설계도를 만든 뒤 여름방학 동안 미 공군에서 부품을 받아 4개월 만에 완성했죠. 첫 시험비행에 성공할 때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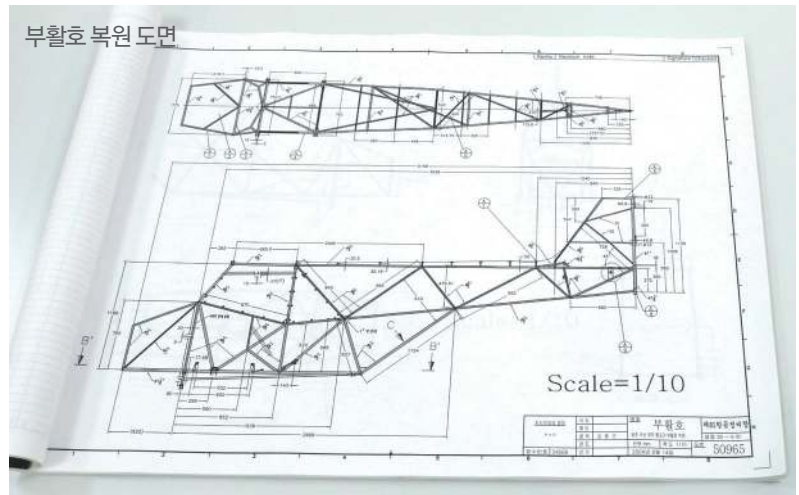
후자는 6년 대령으로 예편한 뒤에도 ‘부활’을 그리워하며 비행기와 평생을 함께 했다. 대한항공 천우동을 지내다 은퇴한 뒤에도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89년부터 올해까지 미국항공항공가협회(EAA) 한국지회장을 맡아 매년 위스콘신주 이시모시에서 열리는 ‘에어 벤처(실용적 경관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왔다. 92년에는 미 시애틀과 버펄러교를 수료하고 자가용 비행기 조종면허를 따내 현재 지체신문에 크게 실리기도 했다.

심재우 기자 jwshim@joongang.co.kr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최초의 국산 비행기 부활호가 자연스럽게 잊혀졌다. 세월이 흘러 2003년 12월 중앙일보에 ‘국산 1호 비행기 ‘부활’ 찾습니다’는 기사가 게재된다. 2003년 12월 17일 라이트형제 비행 10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될 즈음, 중앙일보 심재우 기자가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특별하고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찾다 이원복 씨를 만나 부활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찾기 위해 기사를 작성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74년까지 대구 경상공고에 근무한 이방치 씨가 학교 창고에 부활호가 있다고 제보했다. 기사가 작성된 것도, 기사를 보고 부활호를 떠올려 제보한 것도 모두 영화 속 이야기 같다. 2004년 1월 부활호 제작자 이원복과 문용호 씨는 지하창고에서 희미하게 ‘부활’이라 새겨진 항공기 동체를 발견했다. 공군은 부활호에 대한 복원을 결정하고 2004년 6월 9일 부활호를 인수하며 국산 1호기 부활호가 다시 햇빛을 보게 됐다.

부활호 복원에 공군 제81항공정비창 이면우 팀장 등 27명이 투입됐다. 이는 1954년 부활호 제작공로 표창장에서 명시한 제작요원의 명단 인원수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였다. 부활호 복원은 남은 기골을 최대한 사용하고자 원제작자인 이원복, 문용호 등의 자문을 반영해 상용 자재와 도태 항공기의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복원팀은 먼저 뼈대의 녹을 깨끗이 제거한 후 X-RAY 촬영으로 균열상태를 확인했다. 남아있는 설계도가 없어 기골을 직접 측정해 부품별 크기와 두께 등을 일일이 계산해 나가는 역설계 방식으로 복원했다.

유사 항공기를 기반으로 기초 자료를 확보해 200여 장의 설계도면을 그려내는 한편 당시 제작에 사용된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 당시 동체 기골과 날개 골격 제작에 사용된 원자재는 구하기 어려웠고, 장착되었던 엔진 또한 확보가 어려웠다. 국내외 항공기제작업체를 수소문하며 끈질긴 노력 끝에 복원 완료인 한 달 반을 앞두고 원자재와 엔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당시 사용됐던 엔진은 찾을 수가 없어, 그와 유사한 엔진을 사용했다.



기계 대신 망치로 알루미늄을 두드리는 전통식 타출 방식으로 복원해낸 부활호는 2004년 10월 22일 51년 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돌아와 KT-1과 나란히 지상활주를 마쳤다. 이후 복원된 부활호는 현재 공군사관학교 항공기 전시장에 전시 중이다. 이후 그 가치를 다시금 인정받으며 2008년에는 등록문화재 제411호로, 2020년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제 산업기술-4(2020)호’로 등록되었다.





부활호 명명식 행사

기체번호는 항공기가 제작된 연도와 완성된 순서대로 부여하기 때문에 국산 1호기인 부활호의 경우라면 '53-001호'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활호 기체번호는 1007이다. 그 이유엔 6·25전쟁 전사 조종사인 천봉식 대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1946년 조선학생항공연맹이 창설될 때에 관여했다. 이때 이원복도 창립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원복은 서울대 항공 조선학과가 개설되고 조교를 구할 때 천봉식을 추천해 서로 친교를 쌓아갔다. 그 무렵 일본에서 귀국한 민영락(훗날 부활호 시험비행 조종사)과도 만나게 되어 1948년 7월 항공병 1기로 같이 입대 후 소위(사관후보생 5기)로 함께 임관했다. 천봉식은 전쟁

발발 후 L-4 연락기로 UN공군 F-51 1개 편대를 유도하여 아군이 고지를 점령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 등 활약했다. 하지만 1950년 9월 1일 의성 부근에서 적진 깊숙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천봉식, 이원복, 민영락 이들은 전쟁 이전부터 조국의 항공계를 건설하자는 뜻으로 뭉친 전우들이다. 부활호 제작시기 사천기지에서 함께 근무한 이원복과 민영락은 천봉식 중위를 추모하고자 그의 성을 본 딴 숫자 '1000'과 국민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숫자 '7'을 붙여 1007이라 번호를 부활호에 붙였다.

내년부터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시험비행을 시행한다. 부활호와 KF-21 간에는 엄청난 시간적, 기술적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국 영공을 우리 손으로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는 두 항공기가 하나로 이어진다. 기술적, 재정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극복해 국산 항공기를 제작하고자 했던 '도전' 정신, 국산항공기 제작이라는 목표에 대한 매서운 '헌신', 자신이 가진 모든 항공지식을 쏟아 부었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의 목표를 향한 최상의 '팀워크'가 6·25전쟁 직후 부활호를 만들어 냈고, 그 정신들은 '부활'하여 2021년 KF-21을 탄생시켰다. **AF**

공군 역사 연구의 중심, 공군역사재단을 소개합니다.



공군역사재단 김호연 이사장. 제7, 8대 공군학사장교회 회장

AF 10월 1일 국군의 날이면서, 대한민국 공군 창군 일이지요. 이를 기념하며 특별한 단체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72년의 공군 역사를 연구하는 공익법인 공군역사재단입니다. 자세한 소개를 위해 재단 김호연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공군 장병과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호연 이사장 :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연입니다. 1978년에 73기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해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육체적으로는 힘든 시절이었지만, 조국 영공을 지키는 자부심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젊은 시절 공군에서 배운 도전과 모험정신은 이후 기업인으로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공군학사장교회 회장을 맡으면서 군대에서 동료들과 맺은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공군역사재단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기쁩니다.

AF 이사장님께서 공군역사재단을 설립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 : 그동안 우리 공군은 규모나 전력 측면에서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최정예 군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항공우주 영역까지 포괄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담대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죠. 저는 오늘날 공군이 이룩해온 위대한 영광 뒤에는 선배 전우들의 고난과 희생, 헌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항과 식민지, 해방과 분단으로 이어져 온 우리의 근현대사가 증언하듯, 우리의 하늘도 무수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공군의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과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과 전통을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역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AF 그렇군요. 그럼 지금 재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김 : 공군역사재단은 2013년 4월 15일에 국방부 인가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공군 전문가인 이사 다섯 분과 감사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안팎에 포진해 있는 공군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바탕으로 공군 역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공군의 역사와 전통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비영리 학술단체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국가안보와 공군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공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공군 정책과 항공우주 분야에 관한 여러 활동을 지원해갈 것입니다.



2019 공군역사학술회의 기념사진

AF 공군역사재단은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 : 재단의 주력 사업은 공군역사학술회의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공군역사학술회의는 2021년 현재 총 6회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최고의 공군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군사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냈습니다. 항공독립운동부터 태동기 공군사와 6·25전쟁 당시의 연합공군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전에서의 공군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학술 연구활동과 더불어, 공군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대 방문 안보 강연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F 그렇다면 공군역사학술회의에서 나온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무엇입니까?

김 : 그동안 6·25전쟁은 지상군 중심으로 연구되고 서술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왔죠. 재단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6·25전쟁 당시 활약했던 연합 공군력에 대해 연구하고 조명했습니다. 이는 6·25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6·25전쟁을 이야기할 때 공군력이 빠지지 않죠. 뿐만 아니라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항공 선각자들의 항공사상과 활동을 재조명한 연구도 뜻깊은 성과였

습니다. 이를 통해서 항일독립운동이 의병운동과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포괄하는 항공독립운동사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AF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 : 공군역사재단의 설립 취지에 걸맞은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것입니다. 오는 11월에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연기된 '6·25전쟁 발발 70주년, 항공력에 의한 승리의 기록'을 주제로 제7회 공군역사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재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갈 예정입니다.

AF 끝으로 공군 장병과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 하늘은 늘 우리 위에 있지만 너무나 자명해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저 파란 하늘이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공군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공군역사재단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면서 저 멀리 우주로 향하는 대한민국 공군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F**

미운 오리가 될 뻔했던 '시그너스'의 반전과 교훈

글쓴이 신대원 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장

북한현대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북한정치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외교부, 통일부 등을 출입했으며 올해 세 번째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Cygnus)가 최근 눈부신 활약상을 펼치고 있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8월 과거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협에 놓였던 73가구 377명의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 성공의 주역도 시그너스였다. 애초 정부는 외국의 민간 전세기를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카불 진격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전격적으로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미라클 작전에 나서게 됐는데, 공군이 시그너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입안 자체가 불가능한 작전이였다. 미라클 작전에 투입된 시그너스는 9000km가 넘는 한국과 파키스탄까지 중간 급유 없이 11시간가량 비행해 오가며 377명의 아프간인들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지난 7월 불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국내로 후송하는 '오아시스 작전'을 위해 아프리카로 날아간 것도 시그너스였다. 시그너스는 문무대왕함 국내 이송을 위한 함정 교체병력과 방역·의료인력, 지원인력 등 200여

명을 현지로 이송하고, 청해부대 문무대왕함(4400t급) 장병 301명을 무사히 복귀시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산리·봉오동 전투 101년, 서거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의 품으로 봉환해올 때도 투입됐다. 이보다 앞서 코로나 19 감염에 노출된 이라크 파견 근로자 귀국과 6·25전쟁 전사자 유해 봉환, 미국이 지원한 안센 백신 수송 때도 제몫을 톡톡히 해냈다.

널리 알려졌듯이 시그너스는 공중급유기가 전투기에 급유하는 모습이 백조가 무리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는 점에 착안해 백조자리에서 따온 이름이다. 공군 장병들의 공모를 통해 이름을 선정했다고 하니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그너스가 처음부터 마냥 우아한 백조로 대우 받은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 군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로 불리기 이전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KC-X)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합동참모회의에서는 공중급유기 소요를 결정했지만 이후 수차례 무산을 되풀이해야 했다.



체공 중인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해 항공기의 도달거리, 적재량, 임무수행능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이전까지 턱없이 부족했던 독도와 이어도 상공에서의 작전 가능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도입비용과 운용비용 등 경제성이 번번이 걸림돌이 됐다.

작전반경이 좁은 한반도에서 군이 공중급유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 전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과 공중급유기는 미국 것을 쓰면 된다는 시각이 더해지면서 차기전투기 사업(FX)과 한국형전투기 사업(KF-X)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세계 전사는 공중급유기의 사실상 첫 데뷔를 6·25전쟁 중이었던 1952년 5월 황해도 사리원 공습을 위해 일본에서 출격한 전폭기 지원에 나선 B-29 폭격기를 개조한 미국의 KB-29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한국에서의 공중급유기 확대는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

결국 정부는 2013년 8월에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4대의 공중급유기를 국외에서 구매하기로 의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큰 공중급유기 도입이 제일 먼저 도마에 오르다가 하면, 입찰업체들과의 협상이 길어지면서 기종 선정이 애초 계획보다 늦춰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군은 2015년 6월 유럽 에어버스의 A330-200을 개조한 전장 59m, 전폭 60m, 최대 탑

재 연료량 108t, 비행거리 1만5,320km에 달하는 A330 MRTT를 선정했다. 그렇다고 공중급유기의 수난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니었다. 선정결과 미국 업체의 경쟁기종이 탈락하면서 ‘이번’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일각에선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유사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쟁기종에 비해 이리저리한 성능이 떨어진다는 불만 아닌 불만이 계속됐다.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방위산업비리와 대대적인 수사 이후 처음 결정되는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혹어린 시선마저 있었다. 지금의 시그너스가 우아한 날개를 펴기까지 미운 오리새끼의 성장통이 있었던 셈이다.

시그너스의 성장통은 강도와 빈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 군의 다른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도 왕왕 벌어지고 있다. 올해 공군으로 시기와 범위를 좁혀도 국산 장거리 감시레이더부터 KF-21 보라매까지 크고 작은 논란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아직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이지만 한국형 경향공모함 함재기로 거론되는 KF-21 네이비 역시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없을 순 없다. 다만 우리 군이 보다 과감한 추진력과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지금보다 조금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다면 성장통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AF**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20화 김윤성(金潤成) 시인 편

수변(水邊)

어느 물가
잡초에 파묻혀 외로히 버리어진 빈 벤취 하나.

지나간 날
그대와 나 종일을 앉아
물소리만 듣던 자리

때로는 물새도
나비도 노닐다 갔을
그러나 지금은 빈 자리

그 빈 벤취를 바라본다.
내가 영원히 사라진 뒤
오직 하나 남을 빈자리와 같은.



「코메트」 제12호, 1954년

김윤성(金潤成) 시인은 6·25전쟁기간 문충구국대와 공군문인단에서 종군작가로 활약했으며 공군기관지와 공군문집 등에 「도강유감」(『시집·창공』, 1952), 「경춘가도」(『시집·창공』, 1952), 「눈」(『창공』 제2호, 1953), 「수변」(『코메트』 제12호, 1954), 「화단」(『코메트』 제13호, 1954), 「공림」(『코메트』 제24호, 1956), 「이층에서」(『코메트』 제33호, 1958) 등 시 7편과 서정시의 질적 문제를 언급한 「시단유감」(『코메트』 제31호, 1957) 등 산문 1편을 남겨놓았다.



「창공」 제2호, 1953년

눈

보아라. 황소의 저 커다란 눈을
한나절을 눈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저 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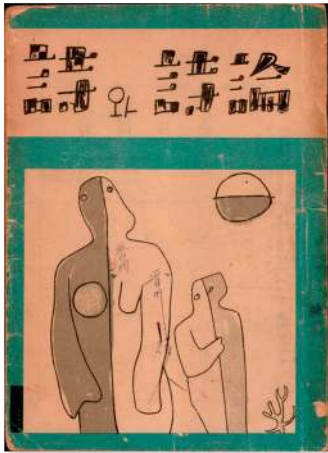
유리와 같이 투명하지 못하고
수정과 같이 차지도 못하고
뽀얀 안개 서러운 구슬처럼
부드럽고 신비로운 깊이를 가진 저 눈을.

한번도 속 마음에 흐리운적 없고
한번도 세상일에 흔들리운 일 없는
저 어리고 평화로운 눈을.

보아라.
황소의 저 커다란 눈을.
이제 저렇게 자연이
입을 버리고
그 속을 드러 내고 있다.



김윤성 시인



『시와 시론』 제1집(전선문화사, 1952)
((사)대구작가콜로퀴엄·대구문학관 제공)

김윤성(1926-2017) 시인은 문학동인집 『백맥(白脈)』을 발간하며 문학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으며 젊은 나이에 언론 출판인으로도 활동하면서 6·25전쟁 기간 중에는 문총구국대와 공군문인단에서 활약했다. 이 시기의 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극적이고도 내성적인 사람이 이런 일까지 참여한 것은 문인은 선비이고 선비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문학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1952년도 대구 피난 시절, 구상 시인이 편집하고 유치환 시인이 발행했던 『시와 시론』 제1집(전선문화사, 1952)에 시, 대답을 발표했으며 편집위원으로도 활약했다. 1950년 초에서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공군 기관지에 발표한 시들보다는 그 이후에 발표한 시들이 완숙미를 더해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시인은 2012년에 발간한 시선집, 『그냥그대로』(도서출판 마을, 2012)에서 『코메트』 제12호(1954)에 실린, 그가 침대 때 썼던 시, 「수변」을 제외하고는 공군 기관지에 발표한 시들을 대부분 수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의 시들은 시인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다’, ‘나무’, ‘돌’ 등으로 시적 대상을 옮겨 가며, 자연과 우주 속 인간의 존재와 그 의미를 모색하는 존재론적 탐구의 시 쓰기를 위한 전초였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시 중에서, “일찍이 어둠 속에 반짝이던 너의 사념은/셋별처럼 하나 둘 스러져가라”라고 읊은 「꽃」과 “한결같은 망각 속에/나는 구태여 움직이지 않아도 좋다/(중략) 나는 나에게 황홀을 느낄 뿐이다/나는 하늘을 찌를 때까지/자랄려고 한다/무성한 가지와 그늘을 펼려고 한다.”라고 읊은 「나무」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코메트』 제31호(1957)에 실린 「시단유감」에서는 시작(詩作) 활동을 남녀의 연애 관계에 비유를 하면서 무조건적, 열렬한 사랑하던 시기가 지나면 권태기가 찾아오듯이 시에서도 그러한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는 결혼기의 시의 약점을 자연발생적인 상태에 대신하여 그 어떤 목적의식을 앞세우려는 데 실패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 후에 권태기가 오는 원인도 바로 이 목적의식의 시가 주는 폐단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십여 년간의 시문단이 그러한 권태기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다.

“시는 그 어떤 목적의식, 즉 두뇌로만 쓰여져서는 아니될 줄로 안다. 최근 일부 시인들이 서정을 싫어하는 듯 하다.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서정의 질에 있는 것이지 서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는 “가장 진실한 본격적인 서정애의 노력”을 요구하면서 아직 서정시는 개화되지 않았다고 하며 서정시인들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그의 시에는 우주, 은하, 광속, 지구, 별, 억년 등의 시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우주는 소위 한테다. 사방과 하늘이 없는, 들고나고 할 것도 없는 한테”(시 「단장」중에서)라고 표현한 대우주와 대자연속에서 먼지와도 같은 지구, 그 속에서 사는 인간 존재의 빛을 포착한다.

몇억 광년 떨어진 별들의 생성과 소멸이 우주적 현상이지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생겨난 지구의 생명, 인간의 삶의 현장과 죽음 또한 우주적 현상이다. 막막한 시공간의 무한대 속에서 벌어지는 원자의 흩어짐과 모임, 모임과 흩어짐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덧없는가.

“태초에 소립자가 있었다/우연적인 너무나도 우연적인/이 우주의 첫 시행(時行)”
(「저녁노을」)

그 덧없는 공간 속에서 시인은 고독과 허무를 뚫고 빛을 모으려고 했다.

“존재란 무엇인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無)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철학공부를 한 어느 학자가 원자의 생성과 소멸의 반복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허구’라고 고백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허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만상(萬象)의 빛’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시를 인간 정신의 꽃으로 보았다. 그리고 태양처럼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살기 위해 썼다. 이런 생각들은 실존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청년 시절에 경도되었던 발레리(Paul Valéry)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게 옳을 것이다.”

(김윤성, 「나의 시 나의 삶」)

「불·빛·말」이라는 시에서 그는 ‘불’은 시와 비슷하다고 했고 ‘말’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빛’이라 했다. 그는 이러한 빛을 자연에서 찾아나갔다.

시인이 말하는 빛은 “서로 다른 이미지와 이미지, 그리고 전혀 상관 없는 두 대상의 직관적인 동정작용(同定작용; identification)”을 통하여 서로 드러낸다. 그래서 그의 시적 작업은 “이 단절된 듯이 보이는 이미지와 이미지를 다시 필연적이게 결합시켜 주는” 시(詩)로서 발현하는 일이 된다.



충남 보령 성주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김윤성 시인의 시비



김윤성 시집 『돌의 계절』

그의 시선집 『그냥 그대로』에 담은 그의 시들, 「바다가 보이는 산길」, 「애가(哀歌)」, 「돌의 계절」, 「돌아가는 길」, 「깨어나지 않는 꿈」, 「아무 일도 없는 하루」, 「그냥 그대로」 모두 “이제 저렇게 자연이/입을 버리고/그 속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 그의 시 「눈」(『창공』, 1952)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인생을 “시초와 끝이 서로 둥글게 물려 하나의 원을 이룬 음악”이라고 하면서 죽음은 연주회당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죽음은 “미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오직 살아 있는 자의 가슴 속으로 돌아갈 뿐”(「아리랑조」)이라고 했다.

이렇게 돌아갈 인생에서 우리는 살면서 괴로워한다. 그 괴로움의 상당수는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나뭇잎은 내 손에서 천 근 같은 무게로 느껴져 왔다.

나는 얼른 나뭇잎을 물 위에 내려놓는다

하늘은 다시 잠잠해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뭇잎은 물 위를 떠내려간다.

(「나의 산책」중에서)

그는 문학이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시를 통해 정치적인 야심이나 사회적인 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자만”이라고 했으며 “시는 그저 시일 뿐이다. 시인도 한 시민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참여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시를 통해서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저 어둠 속 아련하게 빛나는 별들처럼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 「흔들바위」(『저녁노을』, 마을, 1999)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르르 굴러 내릴 것만 같다/그러나 바위는 곧 균형을 잡고 굴러내리지 않는다// 바위 밑에는/조그마한 돌 몇 개가 꺾여 있었다/아하, 이거로구나”라고 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우리의 사회가 흔들려도 굴러 내리지 않게 하는 ‘조그마한 돌 몇 개’는 무엇일까. 그가 노년에 쓴 미발표 시, 그냥 「그대로 IV」(『그냥 그대로』, 2012)에서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그의 시적 소재였던 ‘돌’의 모습과 돌에서 세속의 욕심을 걷어낸 채 자연의 정수(精髓)와 마주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 AF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를 향한 항공우주력의 도약

New Space Age,
The Giant Leap of Aerospace Power toward Space



The background features a vibrant blue and white rocket launch, with a satellite in orbit and an astronaut floating in space. A bright blue arc of light cuts across the scene, symbolizing the transition to the New Space Age. The Earth's surface is visible at the bottom left.

제22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THE 22nd INTERNATIONAL AEROSPACE SYMPOSIUM

2021. 10. 18.(월), 10:00~15:30
Mon 18 Oct. 2021, 10:00~15:3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제30화 신병제1훈련대대 소대장 정튼튼 상사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교육사령부 신병제1훈련대대 소대장 정튼튼 상사입니다. 2001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30기로 졸업해 항공기 기체정비 특기 공군 하사로 임관했습니다. 2006년까지 제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정비업무를 수행했고, 제38전투비행전대로 부대를 옮겨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 오기 전까지인 2018년 11월까지 항공기 정비통제관리 업무와 KF-16 정비 기장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니 벌써 강산이 2번이나 바뀔만큼 군 생활을 했네요. 군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인지 아쉽게도 장가는 못 갔습니다만 부모님과 누나, 매형 그리고 귀여운 두 조카 한태현, 한승현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향모습과는 달리 집에서 쉴 때 음악을 들곤 합니다. 특히 제 청소년기의 추억이 깃든 90년대 락발라드 장르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내세울 만한 특기는 없는데, 신병 훈육과 KF-16 정비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항공과학고 3학년 재학 시절 사진

아참! 제 이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본명이 맞냐고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한글 이름이고요. 제가 태어날 적에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8삭둥이로 태어나 그 옛날 어려운 시절에 인큐베이터에서 2달을 지내고 나왔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튼튼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튼튼’이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소대장을 하고 있는 지금, 가장 멋진 소대장 이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튼튼’의 소대원들은 누구보다 튼튼하게!”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훈육하고 있습니다.

정예 공군인을 양성하는 소대장

보통 소대장이라고 하면 20~50여 명의 병력을 지휘해 작전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장을 말하지만, 공군 훈련단에서의 소대장은 조금 다릅니다. 5주 안에 민간인 40~70여 명을 정예 공군인으로 변화시켜야 하죠. 소대장들은 군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각종 제식과 국군도수체조, 군대예절을 지도합니다. 정예 공군인을 양성하는 첫 단계인 썸이죠. 저는 소대장이 부모님,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훈련병들에게 ‘아빠와 아들’ 호칭을 사용합니다. 소대장의 임무를 딱 하나로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훈련단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무사히 수료할 때까지 꾸준히 케어해야 하죠. 모든 훈련병들에 대해 주 1회 면담도 하고, 외부병원으로 진료를 가야 하는 훈련병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훈련 중 학과도 운영하는데 도수체조, 제식, 유격훈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 차수에 약 800명의 인원이 훈련단에 들어옵니다. 인원수가 많다보니, 물건을 하나씩 나눠주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도 일이 됩니다. 밥을 한 끼 먹이는 데에도 1시간이 꼬박 소요되죠. 훈련단에서의 5주가 매끄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도 모두 소대장들의 몫입니다. 신병훈련은 2개 대대씩 격달로 돌아가며 운영하는데, 쉬는 차수에는 장기간 휴가를 나가 재충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훈련병들이 입영하기 1주 전부터는 입영준비에 정신이 없지만요.



빨간모자에 대한 동경에서

항공과학고 재학시절부터 막연하게 빨간 모자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배들에게 좋은 동기를 부여 받아 군 생활을 시작한만큼, 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했죠. 또, 그뻘 빨간 모자를 눌러쓰고 느림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훈육에 대한 꿈을 잠시 꿔왔죠. 임관 이후에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빨간 모자에 대한 생각은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군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다보니, 여유가 생기고 옛날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교육사령부 출장을 갔다가 빨간 모자를 보고 교관, 소대장, 훈육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곧장 소대장에 지원했습니다. 20년 전에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친구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소대장 임무를 시작할 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임관하고는 줄곧 정비사 생활만 해왔던 터라, 익숙하지 않은 훈련대대 분위기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죠.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간은 지금의 주임원사님인 김영관 상사님과 함께 1대대 훈육관실에서 숙식하며 제대로 된 퇴근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병대대뿐만 아니라 장교/부사관 교육대대도 마찬가지로 후보생/훈련병 차수 운영 중일 때에는 불철주야 교육생들을 보살피어야 합니다. 혹시나 교육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어야 하기에 일과 후에도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대장을 시작할 때 많이 힘들어해서일까요? 매 차수마다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와 다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소대장 보임 초기엔 제가 하는 일이 맞는건가 의구심을 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3년차 소대장이 되어보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는 여러 공식들을 대입하여 풀어야 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최선의 다하자'는 의미가 처음에 했던 다짐보다는 살이 많이 붙었네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올바른 교육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5주간 교육받은 이들이 일선에 나가 영광을 수호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행동과 말투 하나 하나에 기합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3년차가 되니 아무래도 여유가 조금은 생겼죠. 이런 일 저런 일 모두 겪어 봤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양한 경험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마음가짐만은 첫 번째 차수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훈련병들을 마주하며 좋은 훈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보았습니다. 정답은 없는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훈련병이나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좋은 말만 해주고, 힘들지 않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편하고,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은 훈육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무섭고 엄하게 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본군사훈련의 목표는 훈련병들을 정예 공군인으로 양성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한 좋은 훈육은, 훈련병들이 동화되어 훈련받을 마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훈련 또한 교육의 일종이죠. 피교육자와 교육자가 한 마음이 되어 교육에 임했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좋은 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들에게 목표를 세워주고, 적절한 보상과 함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시원섭섭한 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맡은 첫 차수인 795기 수료식 행사날입니다. 수료식을 마치고 소대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처음 차수라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울컥함이 몰려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소대원들도 “아버지 왜 우십니까?”라고 말하며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의 수료식을 보냈죠.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이상의 끈끈함을 느꼈고, 철부지 아이들을 정예 공군인으로 양성해냈다는 성취감이 몰려오며 무엇인지 모를 뜨거움이 머리부터 마음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한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울면서 찍었던 사진은 지금도 가끔 찾아보는데요.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뭉클거리는 감정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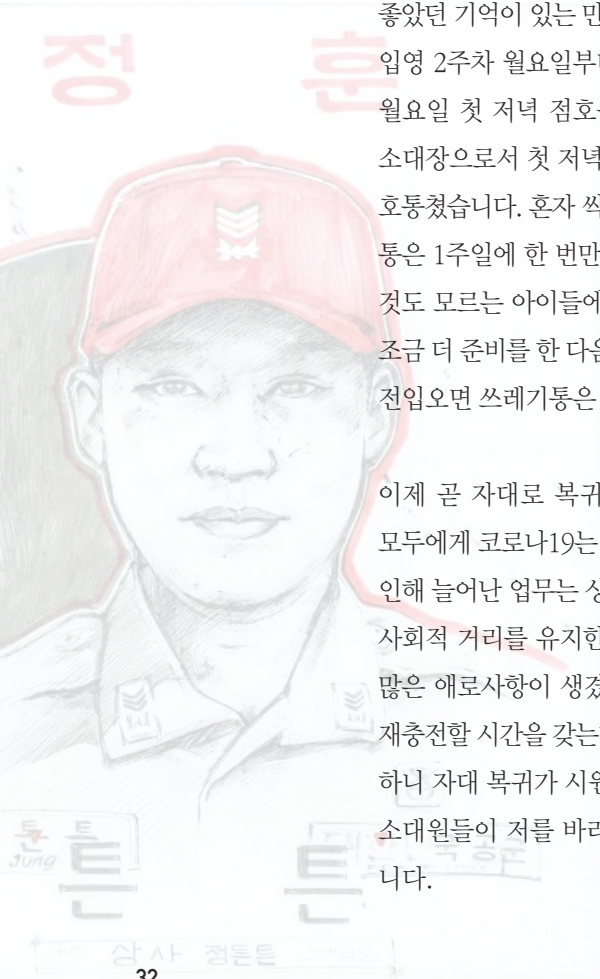




소대원들에게 연락이 올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소대장직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자대 배치를 받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와 전역할 때 군 이메일이나 개인 전화로 연락주는 소대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약 1,000명의 소대원들을 수료시키다 보니 가끔 연락주는 소대원 중에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이름과 사진을 찾아보고, 면담기록부를 참고해 대답하곤 합니다. 지면을 빌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들이! 그래도 너희들이 수료 전에 써준 롤링페이퍼는 잘 간직하고 있단다♡”

좋았던 기억이 있는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도 첫 차수였던 795기 때인데요, 입영 2주차 월요일부터는 초기병영생활이라고 군에 빠르게 적응시키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 월요일 첫 저녁 점호를 하는데, 첫 번째 생활관 호실에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지 않더군요, 순간 소대장으로서 첫 저녁 점호인데 쓰레기통을 안 비웠다는 것에 분노하며 해당 생활관원들에게 크게 호통쳤습니다.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함께 근무하고 있는 조교가 저에게 “소대장님, 생활관 쓰레기통은 1주일에 한 번만 비웁니다.”라고 속삭이며 해결해주더군요. 그 순간 무지했던 제 행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며 제 행동에 대한 아쉬움이 깊게 남았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한 다음 첫 훈련병들을 받았으면 하는 후회가 남네요. 이제는 후임 소대장들이 대대로 전입오면 쓰레기통은 1주일에 한 번씩 비운다고 미리 귀띔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대로 복귀합니다. 지난 3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원섭섭’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코로나19는 큰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힘든 자리임을 알고 훈련단에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업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 차수 감염에 대비하여 입영 2주간 제한된 시설 내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해야 하고, 예방적 격리자들을 위한 도시락 포장과 배부 업무 등 많은 애로사항이 생겼죠. 또, 수료 이후엔 소대장들도, 조교들도 다음 차수 전까지 휴가를 나가며 재충전할 시간을 갖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그저 집에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이야기 하니 자대 복귀가 시원하고 개운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소대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따라주는 끈끈한 정을 언제 다시 느낄 수 있을지 섭섭함도 깊게 남습니다.





이제 소대장직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이 직책을 통해 병사들의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법도 배웠고요. 내년 초엔 자대로 돌아가 다시 본업인 정비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땐 이번 소대장직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병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보렵니다.

끝으로 공군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공군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바다는 비에 젖지 않으며, 비가 내린 후에는 땅이 더욱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저 또한 현재 있는 신병제1훈련대대 소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하여 정예 공군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공군에 대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필승! AF



우 리 부 대 는



24시간 완벽한 대비태세로
공군의 성공적인 작전을 보장하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

「Global Reach! Detail Watch!」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세계를 무대로 전략 공수작전과 빈틈없는 감시정찰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소개한다.

부대 마크의 의미

공중기동정찰사령부의 주임무 수행 및 대한민국 영공방위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표현

- **방패:** 철통같은 조국영공 방어태세
- **삼각편대:** 기동정찰사령부의 **기동·정찰·교육** 임무를 표현하면서 조국을 수호하는 작전사·공중전투사·기동정찰사의 혼연 일체된 전력운영을 상징
- **흰색·검은색:** 24시간 쉼 없이 조국의 하늘과 우주를 수호
- **레이더:** 내부의 십자모양은 기동기의 프로펠러와 헬기의 로터를 상징하며, 전체적으로는 빈틈없고 **정확한 임무수행**을 의미
- **비행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사령부의 신속한 기동성과 우주를 지향하는 기동정찰사령부의 **진취적인 기상**
- **독수리:** 공군을 상징하고, 기동성을 바탕으로 조국의 영공을 포용하며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표현
- **태극문양:**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지구**를 상징

부 대 연 혁

- 2010. 12. 27. 북부전투사령부 창설
- 2016. 01. 01.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창설(전신 북부전투사령부)
- 2018. 10. 26. 김해기지 개청식
- 2018. 11. 12. KC-330 도입
- 2019. 12. 23. RQ-4B 최초 도입
- 2020. 11. 01. 공군 제6639부대 창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호위비행

공군 기동·정찰 임무의 핵심

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기동정찰사')는 과거 작전사령부로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권을 각 기능별로 분할하여 통제하기 위해 공중전투사령부와 함께 창설되었다. 작전사령부의 중앙집권적 통제하 부여된 작전을 수행하고, 작전사령부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것이 기동정찰사의 주요 기능이다. 기동정찰사는 제3훈련비행단,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6639부대,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제7180부대, 제3511부대를 예하로 두어 공군의 공수·공정·정찰·탐색구조·공중급유·항공통제·조종사양성 임무를 총괄한다.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전경



E-737에 공중급유 중인 KC-330



해상조난자 탐색구조훈련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작전·훈련

기동정찰사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위하여 해외공수, 감시정찰·항공통제와 같은 예하부대 비행계획을 파악하고 작전 제한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보장한다. 또한 전투력을 증진하고 타군과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화물의장 및 공중투하훈련, 항공추진보급기지(ATSP) 훈련, 대규모 해상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 전투탐색구조기동군(CASR-TE) 훈련 등의 연합·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륙하는 CN-235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

기동정찰사는 KC-330 시그너스와 같은 신규 무기체계 도입과 전력화를 통해 다변화되는 미래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강한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전 부대원이 같은 마음으로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가장 먼저 달려갈 것이며 가장 높은 곳에서 영공을 수호하는 멋진 부대로 발전할 것이다.



예하부대 지도방문

예하부대의 안정적 부대운영 지원을 위한 지도방문

기동정찰사는 예하부대의 안정적 부대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지휘통신·공병 등 각 분야별로 지도방문을 시행하고 있다. 감찰안전과는 지도방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통제 심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한다. 지도방문 요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따라 예하부대 지도방문을 실시하여 현행 업무에 대한 조언을 주고 애로·건의사항을 식별한다. 임무 요원들은 대처보단 예방이 생명이란 마음가짐으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꼼꼼히 점검한다.



북 카페에서 독서 중인 장병들

장병 독서문화활동 장려

기동정찰사는 사령부원의 독서·휴식 등의 공간 마련을 위해 북 카페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북 카페에는 현재 2천여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대출/반납 시스템으로 도서 이용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한다. 또한 책 읽는 병영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령부원의 수요와 최신 도서, 베스트셀러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신규 도서를 구매하고 있으며, 우수독후감 대회를 통해 독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AF**



2021 명량대첩 축제 축하비행

블랙 이글스는 9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제1전투비행단으로 전개하여 전라남도 2021 명량대첩 축제 축하비행을 실시하였다.





태평양 공군지휘관 심포지엄 참석

박인호 참모총장은 8월 30일(월)부터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개최된 태평양 공군지휘관 심포지엄에 참석해 19개국 공군지휘관과 함께 공군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다자회의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국가 공군 대표들과의 양자대담을 통해 군사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공군 수사인권 위원회 위촉식



박인호 참모총장은 9월 16일(목) 공군호텔에서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최초회의에 참석해 정문자 위원장(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12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군 수사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공군의 수사업무에 대한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점검하고 공군 수사기관의 인권 존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예하부대 대비태세 및 방역 관리 현장지도



박인호 참모총장은 9월 18일(토) 추석연휴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8948부대와 방공 유도탄사령부 예하 8979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한가위 연휴에도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고 군사대비태세와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제8전투비행단

비행표지선 및 포장면 보완 작업

제8전투비행단 공병대대는 9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안정적인 항공작전 지원을 위해 활주로 비행표지선과 비행포장면 보완작업을 실시했다. 91 공병대대와 함께 항공기 이착륙으로 발생한 타이어 고무자국과 누적된 페인트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제10전투비행단

탄약조립 및 무장장착 경연대회

제10전투비행단은 8월 24일(화), 9월 1일(수), 9월 2일(목) '탄약조립 및 무장장착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전·평시 탄약 조립 및 무장장착 임무 요원의 정비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 휴일 면회 시행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9월 11일(토)부터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장병 면회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친구들과의 만남을 쉽게 할 수 없었던 장병들이 이번 면회를 통해 백신을 2차까지 모두 마친 가족·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제18전투비행단

특수임무소대 사격 훈련

제18전투비행단 특수임무소대는 9월 10일(금) 강릉경찰서 실외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특수임무소대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제20전투비행단

추석 명절 맞이 위문품 전달

제20전투비행단은 9월 13일(월)부터 14일(화)까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대와 응천사격장 인근 지역 취약계층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제3방공유도탄여단

장병 조리경연대회

제3방공유도탄여단은 9월 9일(목) 여단 내 급양관계관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병 급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총 6개 예하부대가 참가해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메뉴를 선보였다. [AF](#)

한 달, 한 권



눈물겹게 이어져 온 독립운동의 흔적

눈물겹게 이어져 온 독립운동의 흔적

몽우리들이란 둥글둥글하게 생긴 큰 돌을 뜻하는 우리말인데 백범일지에 등장합니다. 일제 순사가 김구 선생에게 “지주가 전답에서 몽우리들을 골라내는 것이 상례”라며 자백을 강요하자 김구 선생은 그 말을 외려 영광으로 여긴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냐, 나는 죽어도 몽우리들 정신을 품고 죽겠고, 살아도 몽우리들의 책무를 다하리라”라고. 이 책의 제목 『몽우리들의 바다』의 유래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이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잠깐 얘기를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이사회는 한국을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결했죠. 기구가 설립된 지 57년 동안 회원국 지위가 바뀐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지지 않는데’ 선진국이 저절로 되었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36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이었어요.

세월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백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문명의 발전 방향에 무지했고 무능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온 백성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죠. 놀라운 것은,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뒤에도 그 보잘것없는 나라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선 땅 안에서는 물론 이역만리 머나먼 곳에서도... 그 수고 덕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새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일에 쫓기며 사는 후손들은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 닦친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쁘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드물게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의 저자, 김동우 작가가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신문사 사진 기자였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일에 행복이 없다는 걸 알고는 그만둡니다. 행복과 자유를 찾아 세계 여행 길에 오르죠. 그런데 왜 하필 인도였을까요? 그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합니다. 인도 뉴델리의 레드 포트. 무굴제국의 궁전이자 요새였던 곳인데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자도 여느 관광객처럼 그곳에 구경을

갑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운명이 그를 잡아 당깁니다. 거기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곳이 우리 광복군의 훈련지였다는 것어요. 아니, 우리 광복군이 인도까지 갔다니요! 그 사실을 알고 머리가 쭈뼛 섰다고 합니다.

그가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역사, 잊혀진 역사가 얼마나 많을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아, 그렇구나, 감동적이네’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저자의 행보는 달랐어요. 원래의 세계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여행 길에 오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으나 기록되지 않은, 그래서 잊혀져 가던 독립운동의 흔적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을 시작해요. 중국, 인도, 멕시코, 쿠바,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본. 10여 개국의 독립유적지와 아직 그곳에 살고있는 후손들을 취재해 사진집을 내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번 책엔 그 중에서 바다를 건너 인도와 멕시코, 쿠바, 미국으로 간 한인들의 독립운동사를 담았습니다.

사진하는 분들 중엔 글도 좋은 분이 가끔 계시는데 김동우 작가도 그렇습니다. 사진 못지않게 글도 좋아요. 그저 글을 잘 썼고 문장이 유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장마다 그의 한숨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으니 글이 살아서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저희 책방에서 이 책으로 저자 북토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답하더군요. 본인은 역사 연구자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어려웠답니다. 그저 정보 한 조각을 들고 현지로 날아 거기서 물어가며 일일이 흔적을 찾고 후손을 찾는 수 밖에 없었다구요.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질문

도 했는데 사비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때 누군가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분들을 응원하는 방법은 그분들이 세상에 내놓은 콘텐츠를 많이 찾아보고 구입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저자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백하건대,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역사였고, 알고도 하지 않았던 시간을 살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전 세계에 보석처럼 박혀 민족의 등불이 된 현장을 제대로 기억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는 기록할 때 역사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도 인도에 여행을 갔었고 레드 포트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저 관광을 하고 돌아왔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역사의 흔적을 보고 기록하기 시작했네요. 부끄러운 마음에 응원을 담아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씁니다. 이 책 『몽우리들의 바다』 속 사진들과 저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써 내려간 문장들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눈물겹도록 이어져 온 독립운동의 흔적을 만나 보시지요.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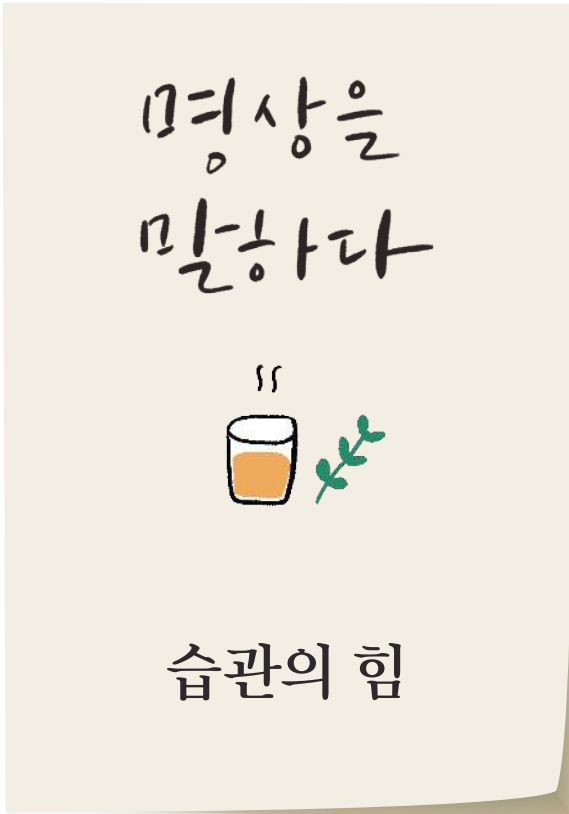


『몽우리들의 바다』
저자 김동우
출판사 수오서재



글쓴이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9년간 일했고 2016년부터 서울 강남에 ‘최인아책방’을 열어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에게 해법을 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하거나 큐레이션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지요. 혹시 초등학교 동창생을 수십년 만에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친구들의 성격이나 습관이 변해 있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더 굳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격과 습관은 시간이 흐르며 반복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 자체로서의 의미와 그것이 습관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카르마(karma, 업)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의 연속이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가끔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해오던 대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동조종장치’ 모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동조종장치’가 극대화된다면 동물들의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겠지요.

“우리는 습관의 창조자이자 상속자입니다.”

습관에 따라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습관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은 누가 만드나요? 바로 자신이 만듭니다. 우리는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의 창조자이자 습관의 상속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습관이 이끄는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과연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의 노예’인 삶입니다. 더구나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이라면 삶의 질이 좋을 수 없겠지요. 술 마시는 일이 습관이 되면 알코올 중독이 될 것이고, 담배 피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온갖 질병에 노출될 것이며, 남을 속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습관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희한한 점은 나쁜 습관은 쉽게 몸에 익지만, 좋은 습관을 익숙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현자는 “익숙한 일은 낯설

게 하고 낯선 일은 익숙하게 하라”고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나쁜 습관은 쉽게 익숙해지니 절제해서 낯설게 하고, 좋은 습관은 익숙해지기 어려우니 익숙해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 매일 꼭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기, 과일과 야채를 챙겨먹기 등. 좋은 습관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어차피 우리가 습관의 지배를 받는, 습관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나쁜 습관이 아니라 기꺼이 좋은 습관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명상의 관점에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 귀, 코, 혀 등 감각기관들로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다. 좋은 느낌이거나 나쁜 느낌입니다. 그런데 좋은 느낌, 예를 들면 좋은 풍경, 소리, 냄새, 맛에 대해서는 더 가지려 하고, 반대로 나쁜 느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떨쳐버리려고 하지요.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갈애’의 마음으로, 나쁜 느낌에 대해서는 ‘화’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갈애와 화가 습관을 만듭니다.”

이 ‘갈애’와 ‘화’가 문제입니다. ‘갈애’와 ‘화’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가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느낌을 주어 ‘갈애’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진심어린 충고를 무시하는 것이 안 좋은 습관인 줄 알면서도 들으려고 하

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나쁜 느낌을 주어 ‘화’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습관을 추동하는 힘은 ‘갈애’와 ‘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잘못된 ‘갈애’와 ‘화’의 마음을 바꾸는 것로부터 시작해야 하겠지요.

여러분은 세상의 자극들이 나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와서 어떤 느낌을 일으키고 그 느낌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따라서 자신이 ‘갈애’와 ‘화’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전체과정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명상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러한 진행과정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지켜봄으로써 그 작동방식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역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이해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전혀 다른 자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진실로 이해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나의 느낌과 그 느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여 ‘갈애’와 ‘화’의 마음을 일으키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결국 내가 실체도 없는 ‘갈애’와 ‘화’에 부질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에만 ‘갈애’와 ‘화’의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느낌’과 ‘습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상태가 되겠지요. 진정한 자유인은 나의 느낌이나 습관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지금 해야 할 일’을 거리낌 없이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영화로운 나날



괴상한 사랑영화

당신이 만약 내일부터 다른 동물로 살아야 한다면, 무엇으로 살고 싶은가. 강아지, 기린, 말... 여러 생물이 있지만 이 질문에 콧수염이 덩수룩한 한 남자는 “랍스터”라고 답한다. 그는 “랍스터는 100년 넘게 살고, 귀족들처럼 푸른 피를 지녔고, 제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꽤나 진지한 답이다. 영화 『더 랍스터』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동물로 바꿔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 동물이나 고를 수 없다. 설정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더 랍스터』는 기괴하고, 이상하며, 때론 애잔한 잔혹 동화같은 영화다. 근미래로 느껴지는 영화 속 세계에서는 모두가 커플이 되어야 한다. 싱글은 용납되지 않는다. 주인공인 데이비드(콜린 파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자신의 곁을 떠나면서, 싱글이 된다. 싱글들은 모두 짝찾기를 위한 호텔 합숙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한다. 이 안에서 45일 안에 짝을 찾지 못하면, 입소 당시 결정한 동물로 변해야 한다. 데이비드는 먼저 호텔에 입소했다가 끝 끝내 짝을 찾지 못해 큰 개가 된 형을 데리고 호텔에 들어간다.

호텔은 어쩐지 으스스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계획적이고, 인위적이다. 프로그램의 매니저들은 최선의 짝찾기를 위한 행동공식을 이미 정해두고 참가자들에게 이를 따르라고 한다. 정해진 몇 벌의 옷만 입어야 하며, 취침과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만 해야 하고, 흡연은 키스 시 상대방에게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금지된다. 자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아마도 짝을 이루고 싶은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 것이다. 자위를 한 사실을 매니저들에게 들킨 한 남성은 토스터기에 손을 집어넣는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

가장 기괴한 부분은 다 큰 성인들에게 인위적으로 ‘커플이란 이래야 한다’라는 상을 주입시키는 장면들이다. 참가자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상황극을 관람한다. 레스토랑에서 남자 혼자 밥을 먹다가 목에 음식물이 걸리는데, 혼자 밥을 먹었을 땐 하임리히법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죽는 내용이다. 마치 <위기탈출 넘버원>의 망한

에피소드 같은 느낌이랄까. 커플이 밥을 먹다가 남자의 목에 음식물이 걸리자, 여성이 하임리히법으로 빼준다. 이 상황극을 강제관람하고 다같이 박수를 쳐야 한다.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레퍼토리다.

그런데 이 요상한 세계를 보다보면 문득문득 기시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웃음이 나온다.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에서도 영화 속에서처럼 ‘커플이란 이래야 한다’는 상을 정해두고, 커플이 안 됐을 경우의 비참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각종 콘텐츠들이 쏟아져나온다. 또한 호텔 매니저들처럼 인위적으로 커플을 장려하려는 부질없고, 재미없는 노력들을 국가가 나서서 할 때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미팅행사를 벌이거나, 지역별 출산율을 보여주는 저출산 지도를 만들어서 출산을 장려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니 말이다.

다시 영화로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랍스터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는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가진 한 여성 참가자를 사랑하는 척해서 커플 합숙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결국 그 여성의 폭력적인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탈주해 인근 숲으로 도망간다. 숲에는 프로그램 탈주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있다. 두 세계는 극과 극이다. 호텔은 커플제국이라면, 숲은 솔로 제국이다. 커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며, 스킨십을 하면 그 수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남녀 간에 대화는 가능하지만, 그 대화의 목적이 수작을 부리려는 것으로 판명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데이비드는 여기서 한 여성과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데, 이로 인해 그의 앞에 다시 험난한 앞길이 펼쳐진다.

줄거리만 보면 B급 영화 같지만, 『더 랍스터』는 2015년

에 열린 제68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수작이다. 영화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칭 구도 등 미장센(영화나 연극에서 시각적 요소를 배열하는 작업)도 훌륭하지만, 영화가 관객에게 계속 ‘사랑’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던진다는 면에서 더욱 좋은 영화다. 합숙 프로그램에서 데이비드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끊임없이 찾는다. 그 공통점은 근시, 코피처럼 사람의 성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들인데도 말이다. 공통점을 찾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 맞는가. 저렇게 해서라도 2명이 된다면,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나. 심지어 영화의 결말까지도 애매모호하게 남겨두면서 감독은 물음표로 영화를 끝맺는다. 다가오는 가을, 이 괴상한 사랑영화를 보고 스스로의 사랑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AF**



영화 『더 랍스터』



글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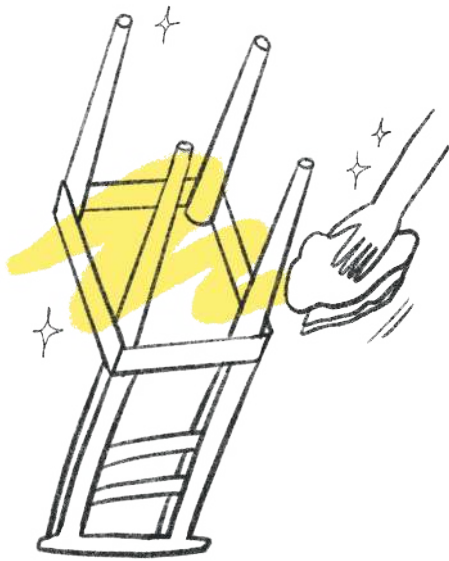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기자일을 시작해 사건·사고, 금융,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를 맡아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문화부에서 영화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그림

글 | 병장 이승용(제20전투비행단 수송대대)

그림 | 강은정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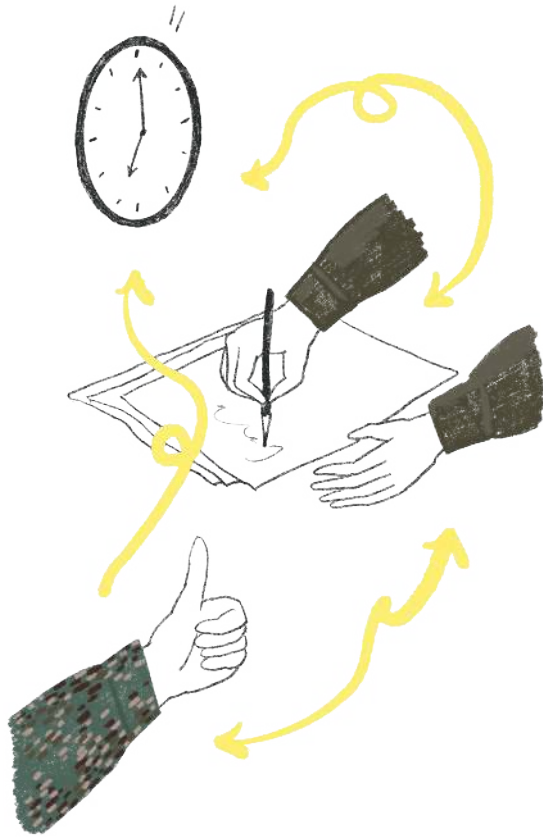
나무 의자의 밑면을 닦는 것처럼



가수 이효리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편 이상순과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효리 부부는 어느 날 함께 나무 의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순이 의자 밑부분을 열심히 꾸미고 사포질을 하자 이효리는 의아해하면서 물어봅니다. “거기는 어차피 남들이 볼 수도 없는 곳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이상순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누가 알긴, 내가 알잖아.” 그 말에서 이효리는 타인의 시선보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 선조들은 신분과 직책에 맞는 품행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조선의 선비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비로서의 체통과 규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선비로서의 품행을 갖추지 못하는 순간에는 가르침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한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내 언행을 보기 때문에 늘 자기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군에서 우리는 수많은 규칙과 예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규칙과 예절이 번거롭고, 때로는 대충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나한테 책임을 묻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에 군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떳떳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복은 비단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들 역시 어엿한 참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무 의자의 밑면을 닦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남들이 보지 않아도 본분을 다하고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일하는 척하는 군인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습니다. 진급을 위해,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가식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과 정신을 내면화하고, 항상 실천하는 군인이야말로 믿음직스러운 참군인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오늘 하루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군인이 됩시다! AF



공군인의 편지

글 | 일병 김성광(제8630부대 대공포소대)

형, 고마워

형, 군대 동기들이랑 입대날 이야기를 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야 어떤 동기는 울고 있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하고, 다른 동기는 마지막 먹은 갈비가 생각난다고 하고, 또 어떤 동기는 마지막 태운 담배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어. 입대날 내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고작 형이더라고 입대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태어나서 형 동생으로 살면서 형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선명해 그리 크지 않은 훈련소 입구 너머로 웃으며 손을 흔드는 형의 모습. 우는 아버지와 감정을 숨기느라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마지막까지 나를 배웅해주던 모습.

마지막까지 놀리는 것 같은 형의 환한 미소가 참 알미우면서 또 웃겨서 공군 버스에 올라타 이동하는 내내 웃음이 나오더라. 형이 입대 몇 주 전부터 계속 놀

렸잖아. 형이 마냥 꼴좋다고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어. 근데 훈련을 받아보니까 형이 꼴좋다고 좋아했던 것이 맞더라고. 이래서 그렇게 웃었구나 싶었어.

워낙 장난도 많이 치고, 눈물 배웅은 안 어울리는 형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첫 전화시간에 엄마가 그러더라고 '네 형이 너 보내고 뒤돌아서 울더라'.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해야할 지 몰라서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돌렸어.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잠깐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 그리고 다시 입대날을 돌아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 놀리듯 웃으며 나를 보내던 형이 아니라 슬퍼하는 부모님을 대신하는 장남의 모습, 내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걱정의 눈빛.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들어왔는데, 정작 형한테는 '나 간다' 이 한마디만 남기고 훈련소로 들어갔더라. 안 어울리는 말이지만

형, 고마워 AF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터넷 : cjhminam1210@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책읽는 공군

글 | 병장 정필근(제19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인생이란 100년짜리 영화

『한 스푼의 시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시간을 스푼의 단위로 정의할 수 없는데 한 스푼의 시간이란 제목을 지은 것은 무슨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 머릿속 많은 물음표가 생겨나며 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야기 속 미용실을 운영하는 세주 모친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미소나 친절을 보여도 사람들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왜 남이 친절을 베풀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잘 해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잘해주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만만하게 본다거나 한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화를 내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점점 베푸는 사람이 줄어들다 점점 친절이라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잘못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예전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평화를 위해서 총을 드는 모순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 되었다. 어쩌면 나도 저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친절을 고맙게 받아들이자며 다짐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 모두 친절을 베풀고 친절로 답해주는 아름다운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아들의 이름으로 사람 모습의 로봇이 택배로 주인공 명정의 집에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명정이랑 인생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로봇 은결이 언제 작동을 멈출지 모른 채 계속해서 살아가며 이야기가 끝이 난다. 마지막에 로봇 은결이는 사람과 다르게 많

은 세월을 살아가며 인간의 시간은 흰 도화지에 찍은 검은 점 한 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런 말을 보니 내 삶이 참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결국 나 한명쯤은 세상에 있느냐 마나 한 존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 나 같은 이런 한 명의 사람이 모이고 모여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의 조연들과 함께 약 100년짜리 영화를 찍어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무기력 할 필요 없이 흰 도화지에 찍히는 검은 점이 재밌는 과정을 담겨있기 위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 있지 않은가? 모두가 똑같은 점 하나로 보이게 될 지 모르지만 점 하나가 찍히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다른 매력이 있는 각자의 다른 과정을 통해 찍혀있는 점인 것이다.

한 스푼의 시간?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한 스푼의 시간을 인생이라는 용매를 통해 녹여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앞으로 그 인생이라는 용매를 나중에 뿌듯하게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영화로 만들어가며 살아갈 것이다. **AF**



『한 스푼의 시간』
구병모 지음
도서출판 위즈덤하우스 펴냄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다


가을을 가리켜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표현한다. 애국가 3절에도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라는 구절이 있다. 실제로 가을의 하늘은 다른 어떤 계절보다 높고 푸르다. 가을 하늘을 지그시 쳐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나들이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대한민국 하늘의 수려함은 세계 곳곳에 익히 알려져 있었다. 예로부터 한국을 방문한 중국 사절단은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한시로 노래했다. 또, <대지>를 지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 펄 벅은 “조선의 가을 하늘을 네모 다섯 모로 접어 편지에 넣어 보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금도 가을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다. 어렸을 적, 깊은 밤에 가을 하늘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이자 안식처였다. 하늘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속삭이기도 했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지만, 가을 하늘은 여전히 자신의 청명함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가을 하늘의 모습에 포근히 안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순히 높고 푸른 모습 때문에 하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하늘을 사랑한다.

기업회생 전문가 강민호 이사는 기업이나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를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시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목적의식 없이 유행에

휩쓸리는 사람은 마치 위험천만한 바다에 맨몸으로 표류하는 사람과 같다.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더라도,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의 모습은 시간을 거슬러 우리 선배들에게도 있었다. 1920년 먼 이국땅에서 설립된 윌로우스 비행학교에도, 1949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한 최용덕 장군을 비롯한 일곱 명의 영웅에게도, 6·25 전쟁 당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종사들에게도.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들은 변하지 않는 소망을 지켜왔다. 시간은 흐르고,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지만, 세대를 거듭하여 내려왔던 소망은 여전히 맑고 푸른 모습을 유지하며 반짝이고 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다. 공군 창군을 맞이하는 이번 달, 우리 공군인의 마음 역시 가을 하늘과 같았으면 좋겠다. 1949년 10월 1일 공군을 창설했던 7인의 소중한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 공군의 발자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군은 72년 동안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했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영광을 책임지는 믿음직스러운 공군, 세계 다른 어떤 나라의 군대에도 밀리지 않는 강한 공군이 되었다. 그 원동력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공군인으로서 저버리지 않았던 정신과 자세였다. 선배들이 품어왔던 소중한 가치를 공군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가을 하늘처럼 계속 지켜나가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겨본다. “공군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마음의 소리

박윤환

parkn3**@naver.com

작년에 전역한 예비역 병장 박윤환입니다. 월간 공군 정말 즐겨 보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월간 공군에서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드립니다.

(AF. 좋은 소재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21년 8월호 <영화로운 나날> 코너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영화소개 글이 유일하네요. 한 번 기획해보겠습니다!)

이진호

lij00002**@naver.com

월간 공군 9월호에는 읽을거리가 많아서 좋았고, 마음 속에 간직해두고 싶은 문구도 많아 좋았습니다. 수용의 미학 '여유', 책 읽는 공군 '어떤 것을 모르는 자신을 알라', 생각하는 그림 '값은 71년 전에 받았습니다' 모두 너무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오원재 학예연구사를 소개하는 글 마지막에 나온 '질풍지경초'라는 말을 지금도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늘 좋은 내용을 실어주시는 편집실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F. 9월호를 여러 번 정독해하신 것 같습니다. 편집자의 입장에서선 굉장히 힘이 나네요! 앞으로도 좋은 말, 좋은 이야기를 담은 공군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훈

thomas74**@naver.com

늘 보내주시는 월간 공군 감사드립니다. 제 책장에 잘 보관하고 틈틈이 꺼내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버스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뺏속까지 공군인이라 개인 블로그에 월간 공군을 연재하는 취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하늘 아래서 공군을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AF. 공군에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밌는 공군 소식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편집실이 되겠습니다.)

조항원

chwchw20**@naver.com

내외의 공군인 코너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꿈을 향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모쪼록 기사 속 주인공의 각오처럼 대한민국 항공사를 널리 알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예연구사가 되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AF. 보내주신 응원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 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2 0